

3차 중앙 운영위

수신: 총여운위

발신: 12대 자주 총여학생회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통 하라고
내손에 꼭 쥐어준 너의 전화카드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고맙다는 말 그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섰네
나는 그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입으로 나는 늘 동지라 말했는데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 카드도 사야겠어
그리고 내게 전화통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벌써 96년 일도 많고 할도 많은 한 해가 지나고 정축년 새해의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단상들이 스쳐지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총여학생회 운영위원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지난 한해의 총체적인 문제의식을 주체정세로 그대로 받아안아야함과 더불어 그러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동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여 각 단위별로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의 총체적인 객관 정세는 정권과 노동자, 농민과 명확한 전선이 그어짐으로 민주대연합구도가 형성되고 외치는 구호 또한 신한당 해체, 정권복진의 정지 투쟁으로 질적인 도약을 가져와 있습니다. 이에 청년학생의 역할은 주벽군으로써의 선도 투쟁이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명임을 각인하고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학생들의 역할이 각 단위마다 무사토써 요구받고 있습니다.

단지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다. 언제나 원칙을 옳바로 세우고 주위의 상황을 잘 대화하기 보다 자신만만함으로 대오의 핵심으로 중심으로 우뚝섭시다.

비가 온 뒤 땅이 굳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러한 상황속에서 극복방안을 찾는다면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해답은 바로 우리 대중입니다. 일분 일초를 우리 학우대중과 운동간부대중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자,,,그럼 논의 안건은

1. 각 단위 상황은

2. 총여는 어떻지요

3. 도학위 심포럼 관련

4. 총여학생회 준비기 사업 중 사활이 걸린 세안

5. 총여 복지 요구안 <→>

6. 총학 중앙운위 보고 (골라서)

7. 제안건

8. 누구누구라 언제 귀가 빠졌다나

*****한 12대 자주총여학생회

수신:12대 자주총여학생회(건)

발산:단대 여학생회

일시:1997.1.7

선전지침

작년 3천만원의 유행어를 만들어낸 서울대 우조교 사건으로하여 마스크를 통해 우리의 생활속에서 문제의식을 싹트게 했던 성희롱문제는 이번 도서관 신관2층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을 통해서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잠시 유행해서 이슈화 되었다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생활 곳곳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작년 성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학내성폭력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남학우 37.4% 여학우 66.1%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성폭력 대책방법에 관한 문항에서 대다수 학우들은 가해자 처벌에 대해 정화, 경고, 근신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아직도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강간'으로 생각하고 또한 경미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친근감의 표현으로 여기는 것과, 성폭력을 정신이상인 몇몇 사람에게 의해 혹은 피해자의 야한차림이나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회통념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를 대하면서 가져야할 관점은 분명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며 남성과 여성과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교양을 통해 봉건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경북대 12대 자주총여학생회(건)에서는 이번 도서관 성폭력사태를 계기로 학내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1. 도학위와의 연계를 통해 도서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신고: 950-6965<총여학생회>)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는 용기롭게어 주위가 환기될 만한 크기의 목소리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할 것이며 총여학생회에 바로 신고를 하면 도학위가 가해자를 퇴실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 학칙개정을 통하여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3년마다 학칙개정이 이루어져 작년에 학칙개정이 이루어져 올해는 우리가 따르겠지만 2년동안 성폭력은 멈추어 주지않기에 강력히 본관과 합의할 계획입니다.)

3. 기존의 여성상담소를 전문요원의 배치로 성폭력 상담소의 기능을 추가한다

4.

어후 계속 되는 도학위와의 논의 과정은 자보를 통해 알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950-6965로 연락 주십시오